

勉菴 流配漢詩 研究

— 제주도를 중심으로 —

韓 昌 勳

目 次

- I. 序 論
- II. 濟州流配의 背景
- III. 勉菴의 文學觀
- IV. 勉菴의 濟州流配 漢詩
 - (1) 忠念吐露
 - (2) 自然賞讚
- V. 結 論

I. 序 論

구한말 격동의 시대를 맞았던 이땅의 지식인들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위정척사의 모습, 온건개화의 모습, 급진개화의 모습이 그것인데, 이 중 위정척사의 대표적 인물로 勉菴 崔益鉉을 들 수 있다.

면암은 초기에 대원군의 섭정에 반발하여 濟州島에 유배되었으나, 제주유

배에서 해배된 후 1876년 병자수호조약, 1905년 을사보호조약 때에는 일본에 강한 적대감을 보였다. 즉, 병자수호조약에 반대하는 상소로 하여 黑山島에 유배당하였으며, 을사보호조약 때에는 全北 泰仁에서 의병을 일으켜 무력으로 저항하였으나,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日本 對馬島에서 餓死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깨끗한 선비정신으로 하여 후세에 이르러서도 많은 추앙을 받고 있다.

면암은 그의 생애중 적지않은 부분을 流配生活로 보내었으며, 죽음도 유배지인 대마도에서 맞이하였다. ‘勉菴集’ 등에 남아 전하는 300여 수의 漢詩 중 금강산 기행때 쓴 40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유배중에 쓰여진 것이다.

본고는 이 많은 한시 중 면암이 濟州流配 당시에 남겼던 11수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그 문학적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²⁾

지금까지의 면암연구는 政治史·思想史 측면에서 일제와의 항거부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그 중요성으로 보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에 흐르는 면암의 전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文學研究를 포함한 총체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대원군의 섭정을 공격함으로써 이루어진 濟州流配는 이후 외세를 배격하는 그의 衛正斥邪 사상의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때 창작된 漢詩를 통해 면암논리의 정당성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朝鮮朝 대부분의 士大夫가 그러했듯이 면암도 전문적 문학가가 아니었으며, 학문적 입장에서는 투철한 性理學의 教養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한시들 또한 觀念의 表白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주유배시 쓰여진 한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서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면암의 文學觀을 고찰하고,

- 1) ‘勉菴集’은 1978년 민족문화 추진회에 의해 번역되어 고전국역총서 3권으로 나왔다.
- 2) 濟州流配漢詩 11수 중 4편은 ‘면암집’에 수록되어 있고, 7편은 필사본으로 발굴되어, 吳文福에 번역, 한라일보(89년 5월 31일~89년 7월 12일) 문화란을 통하여 소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漢詩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한시가 작가의 思想·感情을 잘 드러내는 抒情의 장르임을 인식하고 면암이 투철한 主理的 性理學者임을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Abrams의 도식에 나타난 문학이해의 4가지 입장 가운데 표현론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태도라 할 수 있다.³⁾

勉菴漢詩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제주유배의 배경부터 살피기로 한다.

II. 濟州流配의 背景

崔益鉉은 자가 贊謙, 호가 勉菴, 관향은 慶州이다. 14세에 당시의 대유 華西 李恒老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고, 23세에 明經科에 급제 벼슬길에 나섰다.

1873년에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고서는 동직을 사퇴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대원군의 비정을 공격하였다.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로 보아서는 꽤나 대담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상소문⁴⁾의 배경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당시 대원군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민비의 개입설이나, 대원군 정치에 반감을 가졌던 사대부들의 감정표출 등의 해석이 그것이다.

당시, 당파나 문벌세력의 배경을 전혀 갖지않고 정권을 잡은 大院君은 전제적 강압정치를 시행해 특히 士大夫들에게 심한 반감을 샀었다. 서원철폐 과정과 경복궁 증건시의 불협화음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상소문 작성에 士大夫들의 입장이 고려되어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된다.

이처럼 정계에 파문을 던진 그의 상소문은 高宗에 의하여 비호되기도 하였으나, 三司를 통한 大院君 세력의 반발에 의해, 결국 그는 관직이 삭탈되고 濟州에 圍籬安置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41세였으며, 제주성내 칠성동의 尹奎煥의 집에 적소가 마련되어 이후 17개월 간의 제주유배 생활이 시작되었다.

3) 김시대, “문학의 이해”, 이우출판사, 1985, pp. 20~21 참조.

4) 상소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면암집” 1권에 실린 최영희의 해제를 참조할 것.

이러한 면암의 제주유배 과정은 대원군의 정계몰락 과정과 대체로 그 시기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면암은 대원군을 공격하는 상소로 하여 유배를 당하였으나, 이 상소는 이후 대원군을 정치권력에서 물러나게 하는 역사적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면암의 제주유배는 국내정치적 문제에 의한 것이었다.

면암은 정통 性理學의 맥을 잇고 있는 主理論者이다. 이는 그의 학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스승인 華西는 無師受였으나, 스스로의 학통을 孔子→孟子→朱子→尤庵의 계보로 설명하고 있다.⁵⁾ 정치적 학문의 연원이 堯연이나 학연에 크게 좌우되었던 당시에 있어서, 華西의 뒤를 이은 勉菴도 그 학문적, 정치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조 성리학에 있어서 主理說은 정통적 관학이 행하여야 할 역할, 즉, 忠을 국가기강의 공고화라는 차원에서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忠은 氣 아닌 理에서 찾아지고, 理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면암에게 있어서 그 현실관이 衛正斥邪라는 보수적 국권수호의 자주 의식 방향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런 기본적 입장이 기존의 질서와 부딪친 첫번째 사건이 대원군과의 마찰에 의한 濟州流配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제주유배 기간에 쓰여진 漢詩를 통해서, 이후 면암의 행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Ⅲ. 勉菴의 文學觀

文學作品, 특히, 漢詩와 같은 抒情的 장르는 그 자체의 특징상 作家의 思想感情이 극진하게 표현될 수 있다.

조선조 성리학자들은 전체적으로 '道文一致'라는 큰 朱子學의 文學觀의 테

5) 李澤微, '조선후기 척사논의의 전개와 그 의의', "朝鮮朝 政治思想 研究", 평민사, 1987, p. 167 참조.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면암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면암의 경우 그의 문학관을 서술해 놓은 직접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통이나 작품을 통하여 추측해 나가는 연구들이 있었을 따름이다.⁶⁾ 여기서는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면암 문학관의 모습을 정립하고, 濟州流配漢詩에 투영된 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면암의 문학관을 굳이 한마디로 개념화 한다면 '道文一致를 그 전제로 하는 載道論'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적 결론은 면암의 문학관을 연구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귀결점이기도 하다.

문장은 道를 나타내는 그릇이므로 道를 나타내는 문장이 참된 문장이라는 載道論의 이론은 단순히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만 보아 넘길수 없는 것이다. 載道論의 문학관은 '昌黎文集의 序'나 '文辭' 등의 글에서 문장에 있어서의 道를 논함으로써 구체적인 문학론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문학의 기능적 측면을 중요시 한 이런 입장은 어느 시대에도 부정될 수 없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載道論은 중국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하나의 文學理論으로 확립되었고, 성리학적 지배체제의 조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5C말 부터 정치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士林의 선비들은 道學 즉, 性理學을 숭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문학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재도론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렇게 士林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載道論은 16C에 이르러 더욱 위세를 떨쳤으며, 尤庵 宋時烈에 이르러서는 타 문학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색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면암은 尤庵→華西로 이어지는 正統士林의 학풍을 잇고 있다. 학문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 전수의 대상으로 하는 당시 관습을 고려할 때 면암이 문학면에서 재도론적 입장에 있었음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

6) 林濟焄, "勉菴 研究",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朱昇澤, "開化期の 漢詩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4.

金景國, "勉菴 崔益鉉의 漢詩研究",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89. 등이 있다.

리고,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사항들을 ‘勉菴集’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면암은 自序에서 문학은 ‘平仄이나 格式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事實을 서술’⁷⁾ 한다고 쓰고 있다. 그의 漢詩에서도 이러한 태도에 입각한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그의 명백한 문학관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또, ‘士君子의 文會와 講習을 어찌 山水나 읊조리고 風花나 감상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겠는가’⁸⁾ 라는 부분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위의 두 인용구에서 우리는 문학내용 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道를, 형식 면에서 직접적 서술이라는 勉菴 漢詩 이해의 길잡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愼天甫에게 보내는 서간중 學問의 자세를 논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사람이 천지간에 태어나 한몸에 만가지 일이 모였으나 만약 그 요령을 모두 잡고 宗旨를 정하지 않고서 다만 박학만을 힘쓴다면 혹 記誦하는 습관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詞調의 화려한 것에 빠질 뿐이요, 마음을 세우고 행실을 돈독하게 하는 데는 참으로 얻음이 없을 것입니다’⁹⁾ 라고 말했다.

學問에 있어서 道를 정립하기에 힘쓰라는 점과 아울러 이를 나타내는데 지나친 수식을 삼가하라는 점들은 道學者로서의 모습과 함께 載道論의 文學家인 면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勉菴의 文學觀이 ‘道文一致를 기본으로 하는 載道論’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면암에게 있어서 道란 과연 어떤 모습의 것인가 하는 것이다. 道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며 사람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면암의 경우, 그의 작품을 고찰하여 볼 때, 君親에의 忠이 가장 큰 비중을

7) 권2, ‘日獄中默會五絕十四首’의 序중 ‘不狗 簾格 信心 敘實’

8) 권19, ‘洪原經學齊青衿錄序’중 ‘士君子文會講習 豈但日 嘲微山水繪 畫風花而已哉’.

9) ‘人生天地間 一身萬業 若不撮其綱維 定期其宗旨 而惟博是務 則或拘於記誦之習 或濫詞調之華 其於立心篤行之地 未必真有得也.’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君親은 좁게는 임금,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 지시어로 사용되는데, 高宗을 가리키는 구체적 지시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봉건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면암의 모습과 함께 그에게 있어서의 忠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된다.

한편, 면암은 그의 文學觀을 이야기하면서 反證이기는 하나 '山水와 風花를 노래하는' 漢詩들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自然賞讚의 漢詩는 漢詩의 기본적인 사조로 이해될 만큼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自然과 함께하기를 즐겼던 면암도 그의 載道論的 文學觀에도 불구하고 自然賞讚의 漢詩를 많이 남겼다. 그러나 이런 작품에서도 곳곳에 忠의 의식이 발현됨으로써 性理學的 理念에 충실했던 면암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文學觀의 概念化에 못지 않게 이런 것들이 실제 작품 속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작품의 뒷받침이 없는 문학관의 논의란 砂上樓閣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勉菴 濟州流配 漢詩 11수는 작품성격의 드러난 특징에 의거하여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그의 한시는 성리학적 입장에서의 道, 좀 더 자세히는 忠의 모습을 직접적 비유나 서술양식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載道論的 文學觀이 작품에 반영된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것이며, 면암이 남겼던 수많은 한시의 일반적 특징을 이루기도 한다. 면암은 漢詩 11수 중 6편에서 그의 사상을 직설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핀 '勉菴集'에서의 내용과 일맥상통 하는 바 있다.

이런 성리학적 기본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작품들외에 나머지 5편의 한시에서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濟州島 自然의 모습을 그리고, 이를 찬탄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勉菴은 解配되자 漢擊山을 등반하여 '遊漢擊山記'라는 유명한 기행문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제주 곳곳의 명소를 돌아보고 이를 그의 한시에 남겼다. 그리고 육지로 떠나는 배에서도 제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漢詩 5편은 경직된 모습의 문학관에 의한 분석만으로는 이해가 부족

하다. 이는 문학작품의 다양한 기능과 한시 자체의 구조적 특징 등을 고찰함으로써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文學觀을 통한 면암 한시의 이해에 부족함을 주지 않는다. 이는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면암의 경우 自然賞讚의 작품속에서도 곳곳에서 性理學者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勉菴의 文學觀이 ‘道文一致에 입각한 載道論’이라는 가설하에 濟州流配 漢詩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漢詩 11수를 그의 忠의식이 발현된 漢詩와 濟州自然을 賞讚한 漢詩로 구분하여 살핀다.

IV. 勉菴의 濟州流配 漢詩

(1) 忠念吐露

勉菴은 그의 漢詩중 대부분의 작품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忠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는 평소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濟州에 유배되는 도중 梨津에서 바람을 기다리면서 썼다는 시의 내용부터 살펴보자.¹⁰⁾

掛弓軒次板上韻

漢擎山一點 우뚝 솟은 한 점의 한라산,
積水渺茫中 아득한 바다에 떠 있구나.
愧乏元城操 원성 같은 지조없어 부끄러울 뿐.

10) 이후 漢詩 번역은 ‘勉菴集’ 소개의 경우 金甯熙 외 3인의 번역과 필사본의 경우 吳文福의 번역을 따랐으며, 필자와 견해가 상이한 경우 고쳐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勉菴 流配漢詩 研究

肯嫌屈子窮 굴자의 궁핍이야 어찌 흉이리.
 光迎蓬海月 밝은 빛은 봉해의 달을 맞이하고,
 香襲橘林風 많은 향기는 귤림에서 풍겨오네.
 萬里君親遠 임금과 아버지 먼 곳에 계시니,
 緣何鬢素衷 한조각 이 마음 어디다 바치오리.
 遊遠男兒事 먼 곳에 노니는 건 남자의 일이라,
 八荒亦室中 온 누리도 한 방안과 같도오.
 北瞻天極邈 북을 바라보니 천국은 아득하고,
 南渡地形窮 남쪽을 건너니 땅도 막다랠네.
 百念都成水 모든 시름은 물같이 흘러가고,
 一帆但信風 조각돛을 바람에 맡겼어라.
 巴翁當日事 파옹의 그때 일을 생각하면,
 徒激後人衷 후인의 가슴만 격분하게 하네.

유배지를 향해 떠나는 면암은 이 漢詩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中國의 元城과 屈子の 행적과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漢詩에 자주 등장하는 중국고사를 인용한 비유는 성리학적 지배체제의 조선에서 성행하였던 시적 기교의 하나로서 면암한시는 물론 다른 士大夫들의 漢詩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 절의 巴翁은 尤庵 宋時烈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암을 잇고있는 그의 사상계보적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流配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서도 이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더 임금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면암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임금을 가리키는 지시어로는 君親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의 君親이 高宗을 가리키는 당연하다. 대원군의 섭정이 정통사람인 면암에게는 결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첫번째 상소문이 高宗에 의하여 비호되었음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여튼 제주유배와 관계된 이 첫번째 한시는 이후 그의 작품경향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勉菴은 이후 제주에 도착. 流配生活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문학가라기 보다는 성리학에 입각한 정치가라는 명명이 적절해 보이는 그에게 流配라는 소외와 공백은 개인에게 있어 정치적 시련기를 의미했다. 이 때의 그의 심

정은 유배지를 찾아주었던 친구 李元儀를 서울로 보내면서 지었던 漢詩에 뚜렷이 드러난다.

別李都事還京

野恨千時政 야인이 정치에 관여하니,
 朝著不從容 조정이 조용하지 못할 수 밖에.
 衆沓如鼎沸 비방소리는 물끓듯 하니,
 三司暨百工 삼사와 백관이 똑같은 소리.
 所以人心變 이때문에 인심이 발각 뒤집혀,
 多在禍色中 모두가 공포에 싸여 있네.
 君獨奚取我 어이하다 그대 홀로 취해서,
 有若乃己漚 자기의 아픔처럼 여겨 주는가?
 王事日靡鹽 나랏일은 등하해선 안 되는 거라,
 萬里駕遠風 긴바람을 타고 만리를 가네.
 路迷嶺雪白 눈이 쌓여 길조차 회미하고,
 衣濕江雨濛 옷에는 강비가 함초롬히 젖네.
 隱憂駭機作 혹시나 사고를 염려하여,
 聲說行資竅 행자가 없다는 소리하네.
 凡屢疑誘處 무릇 의망이 속하는 곳에는,
 眷眷一始終 돌봐 주는 마음 시종 한결같네.
 纒涉瀛洲境 재주의 지경을 건너자마자,
 棘我城之東 나를 성 동쪽에 가두는 구료.
 沐浴炎瘴窟 자욱한 습기로 온몸을 먹 감고,
 坐臥纏魅叢 도깨비 모인 곳에 누워 있구나.
 猶有未盡慮 그래도 염려 놓지 못하여,
 勸我做盲聵 나에게 바보되길 권했지.
 杜門耽書籍 문닫고 책 읽으며,
 莫與外人通 외인과 상통을 부디 마오.
 恩霈當有日 은사가 멀지 않고,
 世或誦令公 영공을 칭송할이 혹 있으리라.
 此意良已勤 이 뜻이 너무 고마와서,

偶若知友逢 우연히 지기를 만난 느낌.
 願君無嗟勞 그대여 너무 걱정을 마오,
 吾當保吾躬 나는 응당 내 몸을 보전하리니.
 耿耿一段懷 한시인들 잊으리 한 조각 마음,
 君我親在同 그대와 나는 어버이가 계시네.
 我留君先去 그대는 가고 나 홀로 남으니,
 暈淚自感衷 가슴 아픈 이 마음 눈물이 나네.

오언 고시체의 긴형식을 가진 이 작품에서 면암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다. 대원군 일파에 의하여 유배를 오게된 일들이 잔뜩히 드러나 있으며, 죄인인 자기를 걱정하여 먼곳까지 찾아준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漢詩에서도 면암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李元儀와 함께 君親에 대한 忠의 심정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절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데 유배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그의 漢詩에는 이러한 고독의 모습이 자주 나타내게 된다.

이 두편의 漢詩는 직접적 서술 형태임과 배울시와 고시로서 그 길이가 대체로 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원래 詩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를 상징적으로 축약하는 일반적 특징을 가지는 것이 보통인데, 면암 한시의 경우 그의 문학과 개성에 의해 직접적 서술형태가 선호되어, 시의 길이도 대체로 길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들은 君親에의 忠이라는 주제를 노래함으로써, 文以載道論에 입각한 면암의 시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면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의 환경은 점차 열악하여 갔는데, 최근 필사본으로 발견된 '感懷'라는 제목의 두편의 시를 통하여 면암은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느끼는 감정과 이를 이겨내려는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感 懷 一

難混大義是君臣	큰 의로움은 임금과 신하사이 없어지기 어려운 것.
沉復明時際作民	항차 밝은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서야
積雪深山封事日	눈쌓인 산골에서 봉사를 올렸다가,
炎雲瘴海感懷春	불철에 풍토병 심한곳에 오니 감회깊어
生涯晚許探書屈	늦었지만 토굴에서 책이나 실컷 읽고,
事業將看理釣綸	일이라곤 낚시대 손질밖엔 없지만
豈是降衷殊今古	어찌 사람의 도리 달라질 수 있을까.
徒無形役懷於倫	내 몸이 괴로워도 인륜을 생각해야지.

感 懷 二

紛紛世故亂如絲	실이 흩어지듯 시끄러운 세상에선
靜處每安動處危	처신이 조용하면 편안하고 움직이면 위태로워
人取所長皆綽綽	남의 장점 취하면 모두가 여유 있고
物通其故總奇奇	일마다 이치 알면 기이하기 그지 없어
蕙蘭弱質秋光見	난초의 나약한 기질 가을이면 돋보이고
松栢寒心歲後知	소나무의 싸늘한 마음 추워져서 알게되네.
瘴土經年猶不熟	해 넘겨도 창기에 익숙치 못하여
強將藥餌賴扶持	약물에 의지하여 몸을 부지할 뿐이니.

위의 두시는 재주의 풍토병에 시달리고 있는 면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풍토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朱子書와 尤庵集 등의 책을 읽으며, 항상 人倫을 생각하고 행동을 조심했다. 이는 정통사림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며, 이들 작품을 통하여 그의 사상과 감정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感懷一’에서 그는 책을 읽거나 낚시로 소일하면서도 항상 임금과 신하와의 의로움이라는 성리학적 忠의 人倫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感懷二’에서는 풍토병에 시달리는 역경의 모습과 함께 소나무와 난초를 상징화하여 세상에 처신하는 道學者의 자세를 논하고 있다.

면암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리학의 이념에 항상 충실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을 君親에 대한 忠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漢詩를 통해 표백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君親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충실했던 勉菴은 유배생활 17개월만에 解配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해배란 임금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는 이런 마음의 즐거움과 여유를 가지고 해배를 맞이하여, 육지로 떠나기 전 濟州의 名所를 두루 유람하였다. 그는 제주의 아름다운 명소를 살피고, 濟州 先賢의 遺跡을 찾아 배알하고, 詩를 지어 그 遺德을 찬양하였는데, 이 중 義士 吳興泰를 기리는 漢詩가 필사본으로 전해온다.

過吳義士閣

宛爾瞻眞像 完연히 그 얼굴 비움듯,
 泉臺不朽身 죽어서도 살아계심이어.
 妖氣堪淨潤 요사스런 기운을 씻으려 하였으니,
 斗膽且輪囷 그 의기가 높고 크셔라.
 古砌葵向日 옛돌 해바라기 해를 향할 때
 空山草自春 빈산의 풀들은 봄빛을 맞이해
 人沾興起化 사람들이 감화되어 일어났으니,
 幾有懶頑人 나약하고 어리석은 이 몇이나 남았던가.

義士 吳興泰는 英祖 4년, 제주에서 李麟佐, 鄭希亮 등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이에 항거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면암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해바라기와 풀이라는 상징과 함께 한시에 재구성하고, 그 義氣를 찬양하고 있다. 不義를 보았을 때 항거하는 선비정신은 면암이 항상 강조하던 바요, 이러한 정신은 이후 金北 泰仁에서 일본에 항거, 봉기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 시에서 면암은 상징매체로서 해바라기와 풀을 사용, 앞의 한시에서 사용한 소나무와 난초라는 매체와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상징매체로서 주로 식물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대개 전통적으로 선비의 기개

를 대표한다는 특질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법도 그의 文學觀을 엿보게 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

吳義士의 정려를 배알한 후 新豊村에 이른 면암은 漢詩 한수를 더 남겼는데, 여기서는 임금에의 감사의 모습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過親豊村

暇日登臨月滿樓 시간내어 달 비친 다락위에 올랐더니,
 歸心超遞半天浮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늘까지 솟구쳐
 大皆雨順風調喜 사람들은 맑은 날씨 기뻐하지만,
 客或鳥啼花落愁 우는새 지는꽃은 나그네를 슬프게 해.
 五嶺款遊惟幣屨 신발이 험도록 걸어 오령을 건너왔고
 三江跋涉是孤舟 외로운 배 타고 삼강을 건너왔지.
 天恩罔極南來後 남쪽에 온후 임금은혜 그지 없어
 許我明年勝地遊 멋진 곳에서 한 해를 더 보내게 하시네.

유배생활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역설적으로 표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마지막 두행에서는 濟州流配의 어려움을 天恩이라는 한마디로 감내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서 天恩이란 君親의 恩惠, 즉 임금의 사랑을 가리킨 것이다.

지금까지 勉菴의 濟州流配 漢詩 중 6편의 작품을 통하여 그의 載道論의 文學觀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면암의 경우, 정통 성리학자로서 그의 忠의 실체는 君親, 자세히는 高宗에게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유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에의 믿음과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해배되어서는 이를 감사하는 시편들을 통하여 忠心を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처럼 면암은 한시 창작에 있어 忠이라는 유학적 이념에 충실하였으며, 직접적 서술, 식물 상징어들의 사용을 통해 이를 여실히 반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후 면암의 忠대상이 나라와 민족으로 발전, 외세인 일본과의 투쟁에 앞장서게 되는 사상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그의 漢詩作品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自然賞讚

勉菴의 濟州流配 漢詩 11수 중 앞장에서 살핀 6편을 제외한 5편은 또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들 작품의 특징은 한마디로 유배생활 혹은 해배 이후에 보고 느꼈던 제주 자연에 대한 경탄 및 賞讚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漢詩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朝鮮朝 性理學者의 경우 漢詩는 필수적 교양의 하나였다. 그들은 한시를 통하여 그들의 道를 이야기 하고, 忠을 노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道와 忠만을 담기에 漢詩는 너무 포괄적인 장르였다. 한시처럼 서정적 성격이 짙은 장르는 作家의 思想만이 아니고, 感情을 담기에도 적합하다. 그래서 道와 忠과 함께 개인적 정감과 경탄을 표현하는 작품도 많이 창작되었는데, 士大夫의 漢詩인 경우, 自然과의 친밀감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을 항상 가까이 하고 즐겼으며 면암도 이에 예외이지 않았다.¹¹⁾

濟州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다. 비록 유배라는 상황이었지만,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생활했던 면암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취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싹틔음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런 점이 勉菴으로 하여금 載道論에 입각한 漢詩와 함께 自然과의 생활을 노래한 5편의 한시를 남기게 했다. 그러나 이런 자연에의 몰입이 결국은 임금의 은혜라는 결과적 의미는 이들 自然賞讚의 漢詩 또한 載道論의 文學觀의 연장선적 반영임을 보여준다.

유배 중 李燿가 보낸 詩를 次韻하면서 쓴 漢詩부터 살펴 보자.

1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 출판부, 1977. pp. 4~116을 참조할 것.

次李燿寄示韻

獨居無事戶常關	일없이 문닫고 혼자 앉았으니,
誰識箇中日月閑	이렇게 한가한 줄 누가 알라.
一榻金書堪萬目	한 책상 가득찬 글 보기 좋고,
三杯薄酒強怡顏	석잔 막걸리에 웃어나 볼까.
倘非仙子會前約	아니 신선과 인연이 깊지 않았던들,
肯許名山偶爾攀	어찌 명산에 우연히 오를 수 있으랴.
莫謂惠州天上在	혜주가 멀다고 말하지 말라.
鄉音時帶去舟還	저기 저 배 고향소식 전해주리.
盈盈大海始於絲	넘실대는 큰 바다도 실같은 물로 시작,
吞地滔天勢極危	끝내는 천지를 삼켜 기세가 아슬아슬.
縱稱島俗殊聞見	섬풍속 비록 다르다 하나,
自有靈山擅怪奇	곳곳마다 명산 좋기만 하더라.
隔砌清香柑半熟	뜰앞의 맑은 향기 귤이 처음 익고,
八簾秋氣客先知	발에 든 가을 기운 손이 먼저 아네.
休道行藏隨處適	말말라 자기 신념 곳을 따라 맞춘다고,
風頭立脚古難持	바람앞에 몸 가누기 어렵느니.

아름다운 경치에 둘러싸여 가을을 맞이한 면암의 생활이 잘 나타나 있다. 비록 유배중이기는 하나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면암은 제주의 자연을 사랑스런 감정으로 보고 있다. 이런 태도는 유배를 자기에 대한 임금의 은혜로 인식하는 그의 마음가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의 경구적 싯귀는 이러한 한시가 그의 載道論의 文學觀과 결코 유리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해가 바뀌거나 달이 기울때 나그네의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人之常情이라 하겠는데, 다음의 漢詩에서 고향을 떠나있어 이를 그리는 면암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有客携酒見訪

濱海絕島臘月時 먼바다 외딴섬 선달도 그르는데,
 滿城寒雨客思歸 성안에 찬비 내려, 나그네는 돌아갈 마음뿐
 偶煩隣友殷勤意 이웃에서 은근히 마음을 써 주어,
 黃橘清尊對晚暉 곁안주에 술잔들고 황혼을 바라보네.

쓸쓸해 가는 제주의 모습에서 고향을 그리워 하고 있는데, 당시 제주도민과
 의 교류가 정겹게 표현되고 있음이 이채롭다. 이처럼 流配 중의 시가 쓸쓸함
 과 고독을 드러냄과 대조되게 解配 이후에는 다소 활기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
 준다.

登瀛邱酒

知是由天作 하늘이 만든 줄은 알겠지만
 翻疑禹竈開 우 임금때 깬 것은 아닐런지
 仙豈留下界 신선이 인간세상에 어찌오나
 爲惹俗人來 속인들이야 끌려오지만

瀛州十景의 하나인 訪仙門을 둘러보고 그 경치의 수려함을 노래한 시이다.
 오언절구의 짧은 시편에 경관은 물론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까지 함축
 시켜 표현했다. 그런데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고 禹임금의 고사를 설정함으로
 써 그의 性理學者로서의 모습을 알아보게 한다.

면암은 제주를 떠나는 배안에서도 두 편의 한시를 남겼다.

別刀鎮乘船

幾年絕域隔紛塵 낙도에서 몇 해를 세상과 등졌던가,
 四月南風雨露新 사월의 좋은 풍경 우로마저 새로와라.

山霧都收波面靜 산 안개 걷히고 파면은 고요하여,
 一場快做壯遊人 한 바탕 장유하는 사람 되었네.
 標渺靈山不受塵 저 표묘한 한라산 깨끗도 한데,
 塵潭瀛室渡頭新 백록담 영규실 더욱 더 새롭구나.
 累迹雖斷仁智樂 나 같은 신세 산수의 즐거움 어찌 알라.
 庶能誇我遠遊人 그래도 먼 곳 구경했다 자랑하리.

涉 海

接雲海色況如塵 구름과 이어진 바다빛 아득하기만
 明月棹歌客意新 밝은 달 노젓는 소리 신나는 나그네
 衆口亂喧休說苦 모든 이들 괴롭다 그만 하시오
 憫農全是買牛人 농우까지 판 이는 농사짓기 근심하네.

제주를 떠나는 배를 타면서 쓴 '別刀鑣乘船'은 해배된 즐거움을 제주의 자연을 칭찬하면서 나타낸다. 시편 전체가 즐거움에 넘쳐있는 것이 특징이다. '涉海'에서도 기·승 부분까지 제주를 떠나는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결 부분에서 갑자기 농부를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위정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자신을 소없는 농부에 빗대어 앞으로의 험난한 정치생활을 근심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통하여 여기서는 뒤의 해석을 취한다. 즉 해배의 즐거움과 앞으로의 정치생활의 걱정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혼합되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自然賞讚의 漢詩 5편은 전체적으로 제주의 자연과 이에 더불어 살아가는 勉菴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대 士大夫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았음을 볼 때, 이들 작품 역시 그러한 감정의 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특징 이외에도 자연의 즐거움을 임금의 은혜로 돌린다거나, 앞으로의 정치생활을 근심하는 등의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줌으로써, 문학창작에 있어 성리학자로서의 한계를 더욱 강렬히 느끼게 한다. 즉 면암의 한시들은 투철한 성리학자

의 작품이라는 점을 극복하지 못한 관념시, 목적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V. 結 論

이상에서 勉菴의 濟州流配 漢詩 11수를 그의 文學觀의 반영이라는 가설하에 두부류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암의 문학관은 여러 상황적 정황으로 보아 '道文一致'를 기본으로 하는 載道論이라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그에게 있어서 道란 君親에의 忠이라는 구체적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忠의 발현은 그의 한시작품들의 주요한 특질을 이룬다.

셋째, 自然을 賞讚하는 한시에서도 자연물입의 모습과 함께 임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자연에의 몰입도 성리학자들의 이상이었음을 감안할 때 면암은 궁극적으로 한시같은 문학작품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형상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면암은 투철한 성리학자였으며, 이런 철학적 기반이 문학관과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漢詩를 통해 면암정신의 전체적 모습을 추측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으로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항상 비약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그의 작품 전반에 걸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국역 勉菴集” I · II · III, 1978.
- 漢學日報, 1989년 5월 31일자~7월 12일자 문화면.
- 울곡사상연구원, “韓國思想論叢” 3집, 1984.
- 전형대의 3인, “韓國古典詩學史”, 기린원, 1988.
- 조동일, “韓國文學通史” 4권, 지식산업사, 1986.
- 고창석·양진건,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9호,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9.
- 양정선, ‘勉菴 崔益鉉의 濟州流配書簡 研究’, “德齊 申瑢俊 博士 華甲紀念論叢”, 1989.
- 김경국, “勉菴 崔益鉉의 漢詩 研究”: 流配 漢詩를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9.
- 양순필,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濟州島를 中心으로,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2.